

진 술 서

성명	박지건 (한자: 朴智虔)		성별	남 · 여	
연령	만30세 (1995 . 05 . 15 .생)		주민등록번호	950515-1222013	
본적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41-30				
주거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로 41-30				
	(통반)	주택전화		직장전화	010-5940-8826
직업		직장소재지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u>목격자</u> , 참고인) (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					
본인은 고소인의 지인으로, 2025년 4월 19일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286-9번지, 퇴계원 볼링센터 발생한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본 진술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본인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시경, 본인은 친구의 초청으로 볼링경기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본인을 포함한 여러 명이 있었으며,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인은 김여진과 이종석 또한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볼링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피의자는 시험 준비로 인해 볼링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옆에서 경기를 관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경기 진행 동안 대기 의자에 앉지 의자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서 서서 경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이때 이종석은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경기를 관람하고 김여진 옆에서 응원도 하였습니다. 경기 도중, 김여진이 볼링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서서 경기를 응원하고 있었는데, 이종석이 핸드폰을 꺼내어 김여진의 치마 안쪽 방향으로 핸드폰의 카메라를					

위치시키는 모습을 본인이 뒤에서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종석은 약 5분간 핸드폰을 카메라 방향으로 돌린채 김여진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듯한 불안정한 자세를 유지하였습니다.

본인은 의심을 가지고 당시 상황을 확실히 하기 위해 관찰하였으나, 피의자가
핸드폰을 앞면으로 돌린 순간, 동영상인 아닌 화면이 잠긴상태(검은 화면)로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이종석이 실제로 촬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인은 위 사건을 처음 목격한 자리에서 당시 상황이 실제로 이종석이 김여진을
촬영했는지를 확신하고 단정 지을 수가 없었으며, 본인은 추가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이종석은 자리로 돌아가 공부를 진행하였고, 더 이상의 의심스러운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모두 진실임을 서약하며, 이 진술서에 적은 사항의 신문을 위하여,
법원이 출석을 요구할 때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서약합니다.

[illegible]